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3월 12일(주일) 제1139호



##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축제!

다음 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 스티커 발부받은 차량만 주차장 이용

다음 주일(19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온 누리가 하나 되는 축제다. 주민들을 배려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날만큼은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으로 오가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날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

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 택시를 이용하는 성도는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와야 한다. 주차스티커는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발부해준다.

불법주차는 절대로 안 된다. 서빙고 동작대교 위 갓길, 삼익아파트, 반도아파트 주변이나 양재 온누리교회 앞 상가 등지에 불법으로 주차

하면 안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면 유익이 또 하나 있다. 주차문제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성도들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고, 차세대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성도들은 물론 주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본

지에서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의 의식조사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97%가 이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81.1%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정다움씨는 "교회가 앞장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니 너무 좋다"고 했고, 신동아아파트 경비원 박동우 씨는 "차가 안 막혀서 너무 편하다"면서 "이런 캠페인을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전도사역본부 봄맞이 전도행사

순맞춤전도집회, 맞춤전도 세미나 개최

전도사역본부가 봄맞이 전도행사를 개최한다. '순맞춤전도집회'와 '맞춤전도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순맞춤전도집회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을 순예배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순맞춤전도집회에 참여할 순은 3월 31일

까지 전도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가장 먼저 순원들이 전도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5월 12일 전후로 프로그램(식사, 편지, 간증, 선물 등)을 실시하면 된다.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각 순의 상황과 성격에 맞춰 창의적으로 진행해도 된다.

4월 17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맞춤전도 세미나가 열린다. 각 교회 전도기획팀을 대상으로 '대상자 중심의 문화전도 전략'에 대하여 교육한다.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된다. 회비는 1만원(간단한 식사와 교제포함).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동작대교 주차장 일부 도로로 변경

동작대교 주차장 우선주차 구역 일부가 도로로 변경됐다. 앞으로 주

차장을 이용하는 성도들은 변경된 차로에 주의해서 주행해야 한다.

# 목사랑 결혼한 잘나가는 아나운서

## 윤영미 아나운서와 황능준 목사의 러브스토리

솔직하고 거침없다.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과 억양, 수려한 말솜씨까지 어디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없다. 거기다 빼어난 외모까지. 윤영미 아나운서의 첫 인상이 그렇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거리낌 없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그녀에게는 분명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위풍당당하게 만들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그녀의 남편은 한터공동체(탈북민예배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황능준 목사다. 여자 아나운서들의 남편 직업군에 ‘목사’는 절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잘나가는 아나운서가 목사 남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다. 당연히 그녀의 신상이 그만큼 좋지 않았을까. 아니란다.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간 정도가 전부라고 했다. 그럼 무엇이 화려한 전문직 여성이 경제력 짙은 목사 남편과 만나게 했을까. 역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나보다. 소위 ‘사’자 들어간 직업군(의사, 검사)의 남성만 소개받던 그녀가 목사와 결혼을 했다. 물론 목사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긴 하지만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모 역할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말은 저렇게 해도 그녀만큼 외조를 잘하는 아내도 드물다. 오히려 남편이 내조를 한다고 말하는 그녀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

“사모로서 하는 일이 정말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를 내조하죠. 제가 하는 내조라면 남편의 서재를 꾸며주거나 무료강의를 해준 것 정도예요. 물론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이 한터공동체 지체들을 돕고 밥도 사주니까 그것이 내조라고 하면 내조네요.”

### 영동한 기도응답과 결혼

윤영미 아나운서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그녀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당시 그녀는 춘천 MBC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서울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다.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갈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무작정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하나님께 서울로 옮겨주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심일조도 잘 내겠다고 기도했어요.”

영동한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때마침 민영방송국 SBS가 생긴 것. 경력직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서울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공언



윤영미 아나운서 가족. 남편 황능준 목사와 두 아들과 함께.

한대로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삼촌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온누리교회에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청년부에서 활동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두란노서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관장은 형제가 있으니 만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께등으로 안 들었어요. 당시 제가 소개받던 남자들 대부분이 의사, 검사, 재벌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일반 회사원도 안 만났는데 기독교 출판사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깐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조용히 기도할 곳이 없었다. 때마침 교회 근처에 두란노서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기도도 하고, 그 언니도 만날 겸 연락을 했다. 두란노서원 1층 커피숍에서 그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축구공을 안고 카페에 들어왔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 황능준 목사다.

“첫인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선하고 표정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만난 남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바로 그 언니가 소개해주셨던 사람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더 좋아졌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침 동생이 남편을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물었는데 ‘누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신

뢰가 갔어요.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만난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 쿨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니 심각했다. 결혼하고 나더니 경제력 없는 남편에게 서서히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두란노서원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선언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다. 돈이야 누가 벌면 어떠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돈을 벌어드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속이 타들어갔다. 다른 아나운서들과 비교했더니 더 힘들었다.

“동료 아나운서들은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강남 큰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아파트 한웃수거함에서 한웃도 주워다가 애들 입히고 그랬어요. 내 쪽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남편에게 다른 길도 제시해 보았다.

“한의학을 공부해보라고도 했고, 부동산 자격증이나 영어 회화, 컴퓨터를 배워보라고도 했죠. 앞으로 남자들이 요리하는 시대가 올 것 같으니 뉴욕에 가서 요리를 배워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저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태기는 생각보다 길었다. 심각한 이혼 위기를 이겨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를 악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좋은 점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편안하고 온화한 인품을 보면서 제가 위안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로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황 목사가 전업주부 생활을 할 당시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그때 남편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좋은 생활습관이 그때 길러졌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공부하면서 친밀감을 잘 쌓았어요. 좋은 습관도 많이 생겼고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알아서 봉사활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꼭 맞는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도 한몫했다. 조용히 살림만 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

그녀는 지금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일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다.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다. 개인적인 바람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얼마나 선한지 모른다.

“인지도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강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유명해져야 하거든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강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윤영미 아나운서는 한마디로 쿨한 여자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솔직함이 정말 포근하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간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고, 그 죄를 막는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전만 두꺼워질 뿐입니다.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법조문을 주시며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6절).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 세 가지 해석원리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은 자이니 진리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진리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십계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식법이고, 제사법, 시민법 등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속적입니다. 제사나 의식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의미가 성취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계명을 이해한 자는 성경전체를 이해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세 가지 해석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십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어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 계명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긍정문으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반대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정명령도 그와 반대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십계명은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금하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원리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해석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살인이라는 외형적인 행위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을 유발하는 마음속 동기까지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원리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체의 법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영혼의 법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관계에서의 명령이 상치되고 대립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더 큰 권위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십계명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분명한 언어입니다.

##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7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한분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역사에서 만들어진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밖의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8~10절).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에서는 둘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은 어디서 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분인데 우리는 눈으로 형상화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욕구에서 우상숭배가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형상화된 모습을 신이라고 규정짓는 것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11절).

세 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했습니다. 버려진 종이라도 함부로 밟지 않는 까닭이 혹시 그 안에 여호와와 이름이 적혀 있을까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행동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런 문자적인 행동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제 목일 때만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 거룩하고 복된 ‘안식’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

들팔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은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12~15절).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법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창 2:2~3).

쉬셨다, 복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도 시간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복되다는 말씀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복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통해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제7일의 안식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간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공간 중심의 세상에서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거룩함입니다.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킴으로써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중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온 세상의 일을 자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 욕심입니다. 왜 그런 문제에 빠집니까. 시간속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는 것은 단지 공간만의 구별이 아니라 시간의 구별입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고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12면에 계속)

## 이주민선교와 재능기부

## “내 나라 내 땅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내 나라 내 땅에서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 됐다. 우리나라가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이주민선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능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이주민선교를 배우면서, 작지만 큰 가치가 있는 재능기부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나라의 최정에 요원이 될 수 있다.

/ 김현준, 이소정, 조혜민 기자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다. 이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인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증가한 인원은 무려 100만 명이다. 엄청난 증가세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은 201만 명(2017년 1월)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이 증가속도라면 10년 뒤에는 이주민이 4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0%가 외국인 이주민이 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전도의 황금어장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외국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역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약 20년 전부터 이주민선교를 해왔고, 지금도 계속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2000선교본부 산하 온누리M미션이 그 선봉에 있다.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있다. 안산M센터에만 15개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캠퍼스에서도 10개국 언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

## 지금은 찾아오는 선교시대

말 그대로 지금은 찾아오는 선교시대다. 현

재 204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인(50.8%)이 가장 많고, 베트남(7.4%), 미국(6.8%), 태국(4.7%), 필리핀(2.7%), 일본(1.6%), 기타(26%) 순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땅 끝인 셈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다양하다. 2015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 79%,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9.1%라고 한다. 결혼 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자녀는 11.9%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34.9%로 가장 많고, 결혼 이민자(8.5%), 유학생(4.8%), 외국국적동포(16.4%), 기업투자, 취재 등 기타(14.3%)가 뒤를 이었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혼인귀화(5.3%), 입양, 일반귀화 등 기타(3.8%) 순이었다.

이주민들의 연령도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를 반영해준다. 우리나라에 온 전체 이주민의 연령은 30~39세가 26%로 가장 많고, 20~29세(24%), 40~49세(17%)가 그 다음이었다.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유지나 더 잘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온 사람들이다.

## 고되고, 아프고, 괴로운 타국살이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중국 여성 A씨도 그랬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큰 꿈을 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꿈꿨던 결혼생활과 완전히 달랐다. 남편은 A씨를 성직대상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겼다. 아이를 6개월 만에 조산했다. A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부모가 한국을 찾아와 한 고비는 넘겼지만 불행은 또 이어졌다.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한 것. 그때부터 A씨는 홀로 돈을 벌어야 했다. 고난이 끝이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끌려 다녔다. 갓 태어난 아이는 방치되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했다. 그 모습을 보는 A씨 부모도 역장이 무너졌다. 오죽했으면 A씨의 아버지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 서울·경기 지역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42.8%가 직장 내 스트레스를, 38.9%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면증(36.3%), 우울(22%), 알코올·담배·약물중독(11.6%), 자살과 폭력(6.4%)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모델 개발’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열악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47.7%가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지키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온누리M미션’

결국 외국인 이주민들을 품을 곳은 교회밖에 없다. 예수만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기관이 바로 온누리M미션이다. 온누리M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 교회가 이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 국가별 예배공동체를 만들었다. 안산M센터 13개국, 화성M센터 2개국, 서빙고 4개국, 김포M센터, 평택, 인천, 남양주 각 1개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매도 풍성하다. 28명의 선교사가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13개국으로 역파송됐다. 25개국에서 온 이주민 500명이 세례를 받았고, 30개국에서 온 1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온누리M미션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갔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어예배를 개척할 예정이다. 각 다락방에서 이주민예배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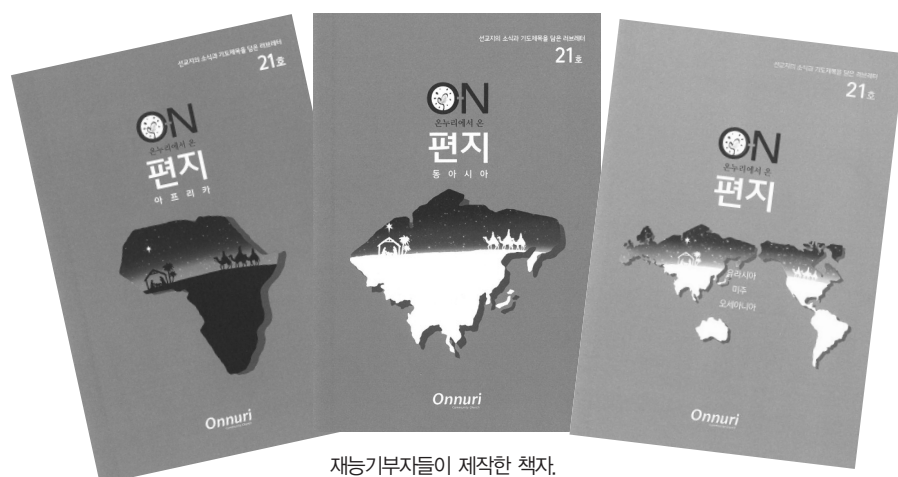
체나 이주민 한 명을 입양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도 준비 중이다. 이 일에 동참할 차세대 교사를 찾고 있다.

둘째, 주중에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리(Startree)를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 및 견학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차세대들이 정말 많이 회복되고 있다. A씨의 자녀 B어린이도 회복된 주인공이다. B어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자 빠르게 변화했다.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자 B어린이를 돌보던 조부모가 달라졌다.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일도 시작했다. 현재 고등학생인 B는 “예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B의 할머니는 “온누리교회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차세대 한 명이 돌이키자 한 가정의 통째로 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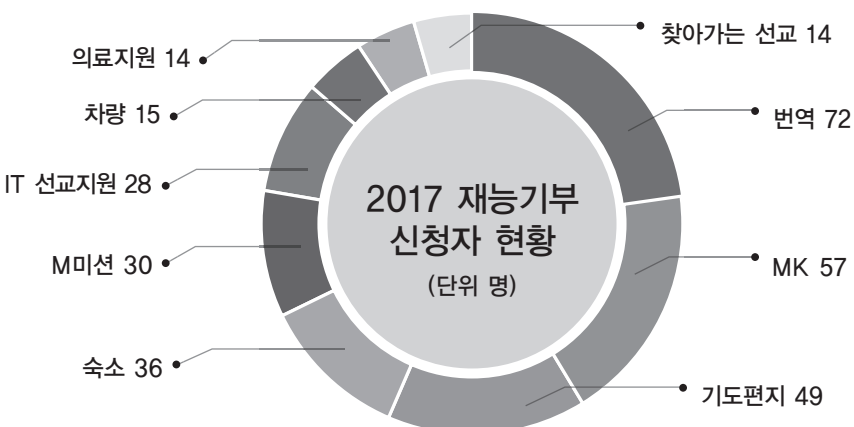
셋째, 다문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 다양한 직업 훈련,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일반 회화와 TOPIK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민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미용, 네일아트, 컴퓨터 교실,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타, 피아노, 댄스 교실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 재능기부만큼 좋은 선교도 없다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할 때 가치가 있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휘할 때 더욱 빛이 난다. 그것이 바로 재능기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가치가 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선교에 기부하는 성도들이 있다. 자신이 가진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그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315명이 재능기부를 신청했다. ‘ON편지 제작·발송 및 중보기도 지원’, ‘IT 선교지원’, ‘번역 지원’, ‘M미션 사역 지원’, ‘선



재능기부자들이 제작한 책자.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이주민들, 온누리 M미션을 통해 500명의 이주민이 세례를 받았다.



한담사역, 인형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내는 재능기부자들.

교사 지원 및 사역 지원'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최훈 성도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정말 힘든 해였어요. 차제가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무너진 영성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이 달랐던 아내와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그는 계속 하와이에 남아 영성훈련을 받기를 원했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갈등을 일단락 시키시더라고요. 때마침 아내가 임신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취직이 잘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 어렵게 생활했다. 시간이 지나서 말이지만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꼭 갔다.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모두 섭렵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평안을 되찾았다. 그해 8월 교회에서 들던 모든 강의가 종강할 무렵 취직이 됐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선교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그때 마침 재능기부 신청서가 눈에 띄었다.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시절부터 선교를 꿈꿨는데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 그가 못 이룬 꿈을 재능기부를 통해 지금 완수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이다.

“과거에는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재능기부를 하면서 꼭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 러시아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보낸 편지 덕분에였다.

“러시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이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들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올해 재능기부를 하나 더 신청했다. 이번에는 MK(Mission Kid,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재능기부다. 그의 선교는 항상 중보기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한 걸음씩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 부부가 함께 재능기부를

부부가 함께 재능기부로 선교하는 주인공도 있다. 서동일 성도(강남A공동체)와 봉성희 성도(강남A공동체)가 사연의 주인공이다. 그들 부부가 재능기부로 선교하는 이유는 빛을 쬔기 때문이다. 남편 서동일 성도는 성악가이고,

아내 봉성희 성도는 피아니스트다. 아내는 8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게 보여줬던 사랑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고 있는데 이웃들의 초대와 받아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고, 큰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그때의 경험 덕분이예요.”

이탈리아에서의 받은 사랑이 그들 부부가 말한 빛이었다. 그들은 빛을 갈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했다. 빛을 갈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재능기부가 빛 갈는데 안성맞춤이었다.

남편에게도 마음의 빛이 있었다. 하용조 목사가 선교집회에서 설교할 때 일이다. 하 목사가 성도들에게 눈을 감고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때 서동일 성도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그 일이 계속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을 진 부부가 드디어 빛을 갈을 때가 왔다. 부부가 가진 재능을 선교사님으로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더군다나 외국인 이주민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재능기부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서동일 성도에게는 대학시절부터 30여 동안 품어온 꿈이 하나 있다.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대학 다니던 시절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공연을 본적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소년합창단을 만들어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다. 소년합창단을 만드는 일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고민했다. 그때 아내가 용기를 줬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고 독려했다. 교회에서 이주민선교를 강조하는 것도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이주민선교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외국인 이주민을 더 따뜻하게 품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큰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재능기부를 통해 선교사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부부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요.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소외된 곳에도 찬양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11기 이주민 선교학교 개강

일시: 3월 15일~4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관 101호  
신청: 아이스쿨 / 회비: 3만원  
문의: 010-3937-3927

#### 기고

###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나는 2003년 안산으로 이사 왔다. 그때도 다수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안산에 살고 있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의 한국살이는 쉽지 않다. 특히 어설픈 한국어 실력은 한국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이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절박하게 돈이 필요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나는 안산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기 전까지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했다. 나는 작은 건물 임대업을 했다. 자연히 외국인 세입자들이 많았다. 이주민들에게 비누, 수건, 치약, 칫솔, 이불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조금씩 나눠주었다. 이러한 사소한 나눔에도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이것도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산M센터에서도 이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주민들과 지내면서 TV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를 목격했다. 한 세입자의 이야기다. 갓난아기와 함께 한국에 온 중국인 D씨가 지적장애인 남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다. 지적장애인 남편을 대신해 D씨가 돈을 벌었다. 그런데 D씨가 그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D씨가 중국에서 데려온 아이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지적장애인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해도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쌍둥이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집밖에서 서성이는 첫째를 만나 대화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산M센터 스타트리아카데미에 데려와 보살피기 시작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하고, 왜소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성장했다. 섬기는 이들의 후원으로 영양상태도 많이 좋아졌다. 그 친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외롭고 힘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생겼다. 쌍둥이 동생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을 뿐이다. 그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나의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이주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주민선교학교를 수료하면서 열방을 보게 됐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서로 돕고, 주께 함께 가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주민을 돕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선규 권사  
(안산산본 공동체)

##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3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차세대 교사들을 위한 축제가 한창이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난 8일 막 올랐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교사부흥집회는 차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장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지난 8일 차세대 교사부흥집회의 포문이 열렸다. 남상옥 장로의 기도, 이덕주 교수의 특강,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꽃샘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차세대 교사 700명이 참석했다. 배워서 제자들에게 전수하려는 열정이 그만큼 뜨겁고 돋보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교회와 교육기관 교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완희 전도사는 멀리 충남 공주성결교회에서 왔다. 이완희 전도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차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기독교유치원 ‘꿈땅자연학교’ 원정래 원장과 교사 7명도 참석했다. 원 원장은 “세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아이들의 성향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그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고, 김순현 교사(꿈땅자연학교)는 “자칫하면 추상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는 기독교 교육에서 진짜 예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 참교육과 참선생의 다섯 가지 자세

첫날 집회에서는 이덕주 교수가 ‘와서보라, 선생에서 선생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덕주 교수는 “교육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교사는



지난 8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집회 현장.

제자들이 더 나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사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본 제자들이 최고의 선생인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교육과 참선생의 다섯 가지 자세를 강조했다.

첫째, 참교육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시작된다.

둘째, 교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셋째, 제자들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 하지 말고 예수를 닮게 하라.

넷째, 뿌리는 것은 선생이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다.

다섯째, 가르치려면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라.

송지원 성도(서빙고 유치2부)는 “지금껏 제자들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 했던 모습을 반성했다”면서 “앞으로 더 밝은 미소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원식 교사(남양주 파워웨이브)는 “한동안 지쳐있었는데 아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본다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다”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랑을 내가 섬기는 중등부 친

구들에게 꼭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건수 총무(수원 파워웨이브)는 “차세대를 오랫동안 섬기다보면 첫 마음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부여달라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는 계속 이어진다. 3월 15일에는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22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 김영선, 조혜민 기자

## 기고

세례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다. 첫 번째 선생님은 대학 동기다. 동갑이었지만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듬직한 친구였다.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 나이 스무살 때였다. 어른스럽고 듬직한 친구였기 때문일까. 나는 그 친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좋은 선생님이다.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대학생 시절 복음을 접한 나는 매주 동역자들과 모여 성경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때 만난 동역자들도 나에게 좋은 선생님들이다. 삶으로나 신앙으로나 항상 본을 보여주었다. 그들 덕분에 나 역시 신앙을 키울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는 잊을 수 없는 큰 선생님을 만났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이춘몽 장로님이다. 이 장로님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

으면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길렀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분의 귀한 삶을 배운 것이다. 이 장로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말씀과 기도, 찬양이 흘러나왔다. 항상 기뻐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 사역을 하셨는데 기독교적으로 운영하셨다. 그렇게 배울게 많은 삶을 사셨는데도 늘 겸손하셨다. 성도들과 만나면 손을 잡고 기도를 부탁하시곤 했다. 지금도 장로님의 편지가 남아있는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보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있다.

요즘에는 유아부 천사들이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다. 유아부 천사들을 보면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생생히 실감난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손뼉을 맞힐 때 보여주는 미소는 삶의 피로를 잊게 한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기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참으로 귀하다. 선생님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 속에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삶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줘야 할까.

교사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있더라도 무작정 야단만 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때로는 아이들을 질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그치지 않고 “왜 그래 무슨 일 있니?”라고 묻는 것이 정말 좋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연다. “무슨 일 있니?”고 묻기만 했을 뿐인데 평평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다. 그 아이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다. 실컷 울고 축스러워하며 돌

아간 아이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면 훨씬 반갑게 인사한다.

중등부를 섬길 때 한 말썽쟁이가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피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봤다. 하루는 그 아이가 “이제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를 다시 만났는데 건장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비전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먼저 된 자의 역할이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남상옥 장로  
(서빙고 유아부)

# 모든 조건 충족시킨 유일한 배우

한국인을 사랑한 또 한 명의 독일인 ‘윤안나’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4월 26일 개봉한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한국인보다 한국과 한국인을 더 사랑한 독일인 선교사 서서평의 일대기를 그렸다. 그런데 여기, 서서평 선교사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여성이 또 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서서평 역을 연기한 윤안나(본명 Anna Elisabeth Rihlmann)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전문사 과정에 입학한 첫 번째 외국인이기도 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서 봤던 모습과 또 달랐다. 밝은 미소가 더없이 아름다운 20대 아가씨였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른 작품을 준비하느라 한창 바빴다고 한다.

윤안나 자매의 한국과 한국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한국살이를 시작한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한국의 시사, 경제, 역사까지 지식도 풍부하다.

그녀의 못 말리는 한국사랑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그녀가 15살 때였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빈집’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이 너무 궁금했다. 그때부터 한국영화를 보면서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 하던 소녀의 꿈이 이루어졌다. 교회 비전트립을 통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경주에도 가보고, 교회에도 머물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알아갔어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는데 한국이 너무 그리웠다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방학 때 또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녀의 한국사랑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한번 볼뻔한 한국사랑은 옹골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한국을 아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었다. 한국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는 한국학을 선택할 정도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 교육방송 EBS에서 조연출도 해보고, 통일연구원에서 인턴생활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국생활이 너무 좋았다. 소중한 인연들과 만남도 이어졌다. 가장 귀한 만남은 한국인 양부모와의 만남이었다.

## 영혼까지 찰떡궁합

“한국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당시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인턴생활을 했는데 지낼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친한 언니가 소개해 준 지인의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만큼이나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윤안나.

곳에서 한국인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한 달만 머물기로 했는데 그 집 가족들과 너무 잘 맞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영혼까지 찰떡궁합이었다. 그렇게 그녀에게 한국인 가족이 생겼다. 한국에서 만난 양부모님은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중보자다. 귀가 시간이 늦으면 혼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밤새워 중보기도해 주신다. 양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윤안나로 지었다. 양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아예 한국에 눌러앉기로 작정했다.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것도 소중한 인연 덕분이다. 교육방송 EBS에서 조연출을 할 때 만난 인연이 그녀가 배우의 길을 걷게 했다.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 MC가 연극배우였어요. 그분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러갔다가 제 어릴 때 꿈이 배우였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배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기를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한국을 처음 알았을 때와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기와 전문사 과정에 합격했다. 그녀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기와 전문사 과정에 입학한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울었어요. 연기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한국인의 감성을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눈물 흘려가며 연기를 배웠는데 외국인 여배우가 할 수 있는 배역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외국인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외국인 며느리 밖에 없었다. 그녀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편견이라

기보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녀가 연기할 수 있는 배역은 정말 많지 않았다.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녀에게 또 하나의 인연을 만나게 하셨다. 바로 CGNTV다.

CGNTV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 역할이었다. 당시 CGNTV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제작을 준비하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일인 여배우를 찾고 있었다. 독일인 여배우를 찾는 일도 어려운데 한국어와 영어까지 잘해야 하고 거기다 신앙까지 있어야 한다니 사실 조건을 충족시키는 배우를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찾고 또 찾다가 포기할 무렵 운명적으로 그녀를 만나게 됐다.

“저한테 서서평 선교사 배역 제의가 들어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한국인 엄마가 제가 배역이 없어서 힘들어 하니까 ‘한국의 초대 영부인도 외국인이었고, 외국인 여자 선교사가 많았으니 그 역할이 생기면 네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위로해줬거든요. 그 위로가 현실이 됐어요”

CGNTV나 그녀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연결해준 만남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독일까지 간다

그녀는 서서평 선교사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서평 선교사를 알아 가면 갈수록 그녀의 삶을 본받고 싶었다.

“서서평 선교사를 연기하면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아픔이나

애환이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연기자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강조하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반성했어요”

서서평 선교사 역할은 그녀를 성장시켰다. 신앙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였다.

“길에 쓰러진 어르신에게 다가가 ‘괜찮아요?’라고 말을 건네는 촬영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서평 선교사 역에 몰입할수록 서서평 선교사의 큰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예요.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셨어요. 늘 이웃들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보살피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서서평 선교사에게 관심 가져야 할 독일 교회에서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독일인들이 서서평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 한국학과에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개봉 날만 기다리고 있다. DVD를 구해서라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알아보고 싶어하는 독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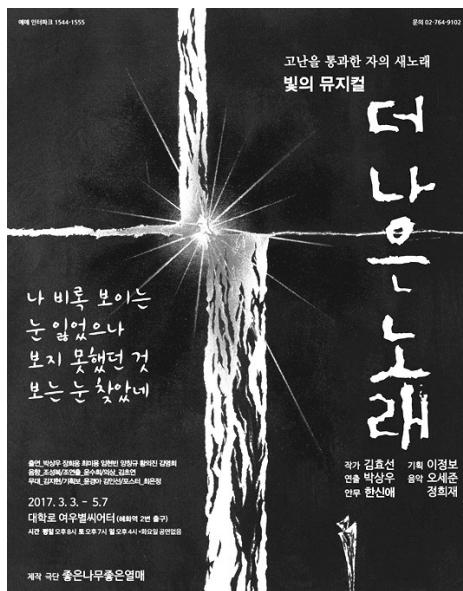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촬영을 마치고 그녀는 배우로서의 비전이 하나 더 생겼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작품과 연기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 사순절에 꼭 한번 봐야할 문화공연

## 십자가 길 가신 예수를 더 깊이...



기독교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천로역정', 앤도 슈사쿠 소설 &lt;침묵&gt;을 원작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 (왼쪽부터).



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존 번연의 소설 <천로역정>은 영국 근대소설의 시조이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신앙서이다. 순례자 필그림이 하늘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순례자 필그림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걸어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으면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줄기 빛이 보인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다. 순례자 필그림과 함께 예수를 쫓아가는 순례의 여정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북촌아트홀 02-988-2258

## 순교나 배교나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때는 17세기 일본.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 페레이라가 일본 선교를 하던 중 배교(背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페레이라의 제자 로드리게스와 가르페는 스승을 되찾고,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에 밀입국한다. 박해가 한창이던 그곳에서 어렵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기리시탄' (크리스천의 일본식 한자 발음)들과 처참한 박해현장을 목도하고 그들의 고통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순교냐? 배교냐?'를 갈등하던 로드리게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인생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여, 전 당신의 침묵과 싸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의: 필름포럼 02-363-253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우리는 지금 사순절(四旬節, Lent)을 보내고 있다(3월 1일~4월 15일). 사순절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다.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 기도와 절제,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이 중요한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문화공연들이 있다. 기독교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천로역정', 앤도 슈사쿠의 <침묵>을 원작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가 바로 그것이다.

##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

고난을 통과한 자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

까. 뮤지컬 '더 나은 노래'를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유명 조각가 '우선'은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 간다. 그런 그가 희귀병에 걸리고 만다. 색소망막변성증으로 시력을 잃고 만 것.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한 소녀를 만난다. 자신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소녀를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소녀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이가 바로 예수다. 고난을 겪고 거듭난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

“나 비록 보이는 눈 잃었으나 보지 못했던 것 보는 눈 찾았네.”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 KBS 드라마 '고마워 웃게 해줘서' 등을 집필하고 미국 휴

스턴 영화제 TV 드라마 부분 대상을 수상한 김효선 작가가 극본을,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연탄길' 등을 연출했던 박상우 감독이 연출과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온다. 어떤 이는 그 고난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그 고난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산다. 이 뮤지컬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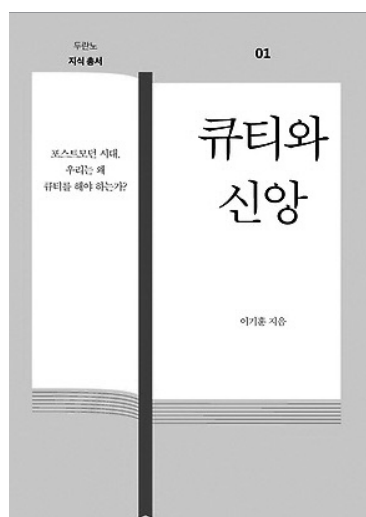
문의: 대학로 여우별씨어터 02-764-9102

## 뮤지컬 천로역정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독교 고전 <천로역정>

## 두란노 신간

## QT를 왜, 어떻게 해야 할까?



〈큐티와 신앙〉

이기훈 저 | 두란노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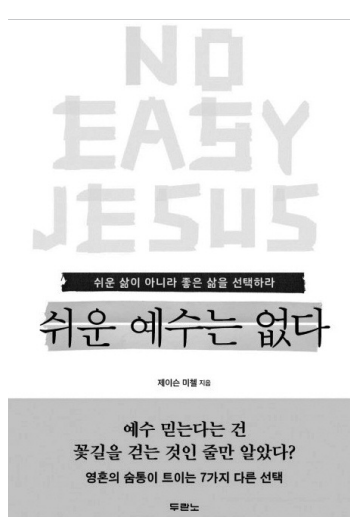
QT는 'Quiet Time'의 줄임말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요한 QT를 왜 하

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기훈 목사가 책을 펴냈다. QT를 바로 알고, 바로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기훈 목사는 “그동안 해왔던 QT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렇다면 QT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기훈 목사는 “QT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신앙적 성찰,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 삶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QT는 말씀묵상을 통해 얻어진 통찰력과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깊은 큐티를 위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질문하기’와 ‘성경적으로 사고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질문을 통해 신학적 고찰을 하고, 성경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전보다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폭 넓고 깊은 QT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 일상이 개혁되는 7가지 다른 선택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 저 | 두란노 | 12,000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전과 다르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요 10:10). 그런데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축복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 때가

있다.

<쉬운 예수는 없다>의 저자 제이슨 미첼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시각을 이해하고, 담담하게 그 길을 따른다면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제이슨 미첼은 이 책에서 ‘일상이 개혁되는 7가지 다른 선택’을 하라고 권면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의 용서도 큰 비극에 대한 용서만큼이나 중요하다. 큰일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작은 일에서 용서하는 능력과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에서 용서를 연습할수록 큰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일에서 용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가치가 있다.

## 올해는 러브소나타 10주년

7월 26일 동경에서 기념행사 개최

2007년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7월 25일과 26일 동경국제포럼에서 막 오른다. 일본선교의 새 지평을 연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사다. 동경 현지 교회와 사룬데코팀을 벌써부터 행사준비가 한창이다. 러브소나타 동경 실행위원장 호소이 마코토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양국이 하나 되어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호소했고, 사룬데코팀은 화관제작 봉사

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화, 수, 금(둘째 주 수~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화관을 제작하고 있다.

사룬데코팀 류석인 권사는 “이번 러브소나타 동경 행사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화관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러브소나타 동경 봉사자 모집은 4월 28일부터 시작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러브소나타 오사카.



호소이 마코토 목사  
(러브소나타 동경 실행위원장)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열리는 러브소나타 동경 전도 집회 실행위원장을 맡은 호소이

마코토 목사입니다. 2007년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을 향한 사랑과 선교 비전을 따라 하소 목사님이 시작한 러브소나타를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

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초대교회가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

로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에 동참했고, 성령님의 위로와 희망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동경 행사를 통해 온누리교회와 일본 교회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시작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된 다.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초등학교 3~6학년을 위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이다.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사용한다.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양육자가 양육할 수 있다. 이기훈 목사(일대일)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자아와 사회성이 형성되는 초등학교 3~6학년 시기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은 2주 동

안 진행된다. 어린이 일대일 과정의 비전, 우리 자녀의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성인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만 수료할 수 있다. 제1기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은 4월 9일과 16일 오전 8시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다.

문의: 02-3215-320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3월 비전헌금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울’ 후원

오늘(12일) 봉헌하는 비전헌금은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울’에 기부된다. 드림터치포울(대표 최유강)은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봉사단체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을 양성해 경제적인 비용 없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인 영역까지 멘토링하면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최유강 대표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피주면 그 아이들이 살아날 것이고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터치포울은 2015년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sia Philanthropy Awards) 올해의 NPO상 및 교육봉사 관련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후원문의: 02-6063-004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서빙고, 양재 마더와이즈 참가자 모집

3월 7일 개강, 서빙고 두란노홀, 도곡교육관 온유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마더와이즈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빙고 두란노홀과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차세대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개월~초등 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탁아도 가능하다. 회비는 5만 원. 참가신청

은 아이스쿨(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마더와이즈는 ‘성경적 여성성’을 회복하고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3215-3521

02-570-7436

###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QT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이 진행 중이다.

일본어 중급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에서 6월 27일까지 실시된다.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한행자 권사(010-7738-3604)

## 45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매주 토 오후 3시 과천

제45기 젊은부부학교가 4월 8일부터 4월 29일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과천 로고스센터에서 진행된다.

4월 22일(3주차)에는 가평 교원비전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된다. 젊은 부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원리, 성격 분석, 부부의 성, 부부대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결혼 12년차 이하(이상은 개별 상담) 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비용은 가정 당 35만원. 문의: 010-2578-9861

## 2017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신청

24일 오후 7시 서빙고

2017년 하반기(8~12월) 결혼예배 예약신청을 3월 24일(금)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에서 받는다. 오후 7시까지 주점 장소에 도착한 성도에 한해서 예비접기 방식으

로 순번을 정한다.

예비신랑이나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결혼예배 예약을 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3215-3178

양재: 02-3215-317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3월 19일 (주일) 시간: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자: 대상: 1월 1일~3월 4일까지 등록 성도

|                 |                         |                         |                                     |                                     |                                 |                                             |                            |                  |
|-----------------|-------------------------|-------------------------|-------------------------------------|-------------------------------------|---------------------------------|---------------------------------------------|----------------------------|------------------|
| 강남A 최태영         | 안경화 유이금 이선호 이윤희 이은하 이종광 | 박정선 윤준찬 정은진 최윤영         | 박은신 박지현 서윤숙 서은숙 송대현 오정미 원종덕 이은주 정인섭 | 박수현 조현정 서초B 박창욱 박문기 박주영 손근희 이윤정 전현정 | 조현정 서초D 김남일 박소영 박현진 손경숙 정홍석 차유진 | 김남순 김상운 김영란 김재혁 심정애 오연실 오인숙 오희선 유은아 차한수 한정진 | 송파 노윤희 윤신환 이호찬 조인화 최미영 최병철 | 푸른누리 박정웅 엄지이 홍은미 |
| 강남B 이상영 이형숙 진영희 | 이유정 이은하 이종광             | 강남D 김성희 김성주 김신애 김영희 박수진 | 분당A 강경희 이은주 정인섭                     | 분당B 김현애 박순자                         | 서초A 김경아                         | 양재 김경숙                                      |                            |                  |

## ■ 아름다운 동행 수료 간증



/ 양주현 성도(반석교회)

우리 부부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큰 불만이 없었다. 어느 부부나 싸울 때는 밋고 으르렁거리니 이만하면 감사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기쁨이 조금씩 사그라져갔다. 평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싸움이 커지면 그동안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만큼 회복이 더뎠다. 그가 변화되면 해결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지만 남편이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슬픔을 몰랐다. 이번에 그 상처와 슬픔을 알게 되면서 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동행 코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잘 산다면 부부 둘 중 한 명이 더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나름대로 원만하게 살고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너그러움이자 희생 덕분이었다.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고, 그동안 남편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미안했다.

## 한 가지 확신

성경적 가정의 부부대화를 배우던 중에 존경하는 마음과 경청을 근거로 한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 둘 다 서로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지만 과연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공격적이거나 선포하는 대화가 싸움의 원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과 나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본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조정 방법 중 하나인 ‘Time Out’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매주 같은 공간에서 또래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참 좋았다. 대화가 풍성해졌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전보다 웃음이 훨씬 많아지고 친밀함과 신뢰가 더 쌓이고 있다.

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 우리 부부는 성경적 가정의 모습을 기준으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다. 싸움을 하더라도 둘 다 이기는 훈련을 계속 하고 싶다. 말을 끊지 않고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 수료간증



/ 장철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 나의 신앙성장기

믿음에 빛진 자로서 구원사역에 동참하고자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을 신청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마치면서도 나의 죄성은 변하지 않았었다. 양육과정을 마치고 양육자님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 다행히 아들의 중재로 화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보았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야 했다. 당시 순장님이 계속 순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셨다. 순원들과의 중보기도와 순모임을 통한 찬양, 아웃리치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갔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으로 찬양했다.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흔들렸던 믿음이 참여와 섬김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정을 이수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다. 목사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해주셨다. 덕분에 예수님의 생애, 부활의 사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큐티의 적용, 성령,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에서 이기는 삶, 순종, 사역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유혹이 와도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났지만 이제는 화를 내기 전에 이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터에서도 손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손님이 더 늘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보았다.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어 구제사역을 감당하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선교사님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았다.

16주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금방 흘러갔다. 평일에는 직장에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바빴다. 지난해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크나 큰 은혜를 주셨다.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 뜻을 분별해서 교회생활을 해야겠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게 되기를 소망한다. 최소한 나로 인해 주변인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제는 영적자녀를 낳는 역할도 감당하고 싶다.

## ■ 1기 한국어 선교학교 수료 간증



/ 백위현 성도(분당B공동체)

한국어 선교학교 과정이 신설된다는 광고가 나에게 “너도 한 번 도전해 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예배드리고 아내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어 선교학교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떨까?”

나의 제안에 아내는 흔쾌히 찬성했다. 오히려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다. 당장 교회로 돌아가서 접수하자고 했다.

지구촌 이웃들을 생각하면 선교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선교는 나에게 너무 힘들고 무거운 사역으로 다가왔다. 내가 한국어 선교학교에서 배운 것은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주자 같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이었다.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교라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다.

나는 한국어 선교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설렜다. 때마침 화성M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자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며 “한 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었

## 나도 선교사!

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화성M센터 첫 봉사자 모임에 다녀왔다. 그리고 화성M센터 윤용국 목사님과 열 명 남짓 되는 봉사자들이 기도모임을 가졌다. 과연 내가 화성M센터에 오게 될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까라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하지만 섬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강의를 해본 일도 없고, 잘하는 외국어도 없는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말이 한국어”라고 되새기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갓 졸업한 한국어 선교학교 졸업생이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감사하다.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한국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는다. 한국어 선교학교와 화성M센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정지한, 정결한 선교사(아프리카D국)

## 성실함과 은혜로

이곳에서 함께하는 한국인 식구들이 어느새 20명으로 늘었다. 농업프로젝트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6명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생겼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막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자연농업을 전수하며, 청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 한 번 가려면 사막을 걸어가거나 한 시간에 한 대쯤 들어오는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조만간 마을까지 버스가 들어온다고 한다. 더욱 감사한 것은 좋은 시공업체를 만난 것이다. 원래 2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5개월이나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준 시공업체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고, 그동안 한국인 선교사들이 보여준 우정, 신뢰, 사랑에 감동받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아찔한 일이 있

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동이 트기도 전에 주민들을 깨우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진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나무그늘 아래에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풍족하지 못하다. 성실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비삼, 밭벼, 바나나 등을 키우고 있다. 주민들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농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마을 부녀자들은 자연양계에 폭 빠져 있다. 키우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고, 팔면 돈도 되는 최고의 가족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 이제는 편안하고 풍성한 삶보다 값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돕고 싶다.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고 살아나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 신임 리더십들의 각오

## “성도, 공동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난 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에서 신임리더십 784명이 세워졌다. 순장 412명, 다락방장 138명, 대학청년부 MC 110명, 차세대 코치 124명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번에 신임 리더십으로 세워진 양준홍 다락방장(서대문공동체), 이애영 순장(일본어예배), 강건 대학청년부 MC(하늘공동체), 정승숙 차세대 코치(서빙고 유아부)가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양준홍 다락방장  
(서대문공동체)

“순장으로 6년 정도 섬기다 다락방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순장으로 섬길 때와 다른 책임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장이 어머니 같다면 다락방장은 아버지 같은 마

음으로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잔잔한 정은 없지만 이성적이고 깊은 정으로 교감하고 싶습니다. 다락방은 하나의 작은 교회 같기에 어깨가 무겁지만 특별한 임무를 저에게 부여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다락방장으로서 두 가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개순원들이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개

순원들을 순모임으로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순장님들과 협력해서 순원들을 심방할 것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순원들의 집과 일터를 자주 방문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다락방 1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이번 목양대회에서 온누리M미션의 사역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안산M센터에서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이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담당목사님과 장로님의 뜻을 받들고 순장님들을 잘 이끄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더욱 발전해서 더 많은 분들을 공동체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애영 순장  
(일본어예배)

“일본어예배에 나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재즈공부를 하려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

려고 유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3~4개월이면 일어나시겠지 생각했는데 무려 11년을 간호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온누리신문에 나온 일본어중급반 과정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 일본어예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어예배 성가대를 섬기

고 있습니다.

저는 순장으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공부와 일이 겹쳐 잘 해낼 수 있을지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순장제의가 들어왔을 때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바로 못한다고 거절했을 텐데 부족한 저를 세우려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순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순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원들의 삶을 잘 들어주고, 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순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변화하게 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순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과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 거룩한 부담이 축복으로

강건 MC  
(대학부 하늘공동체)

“증조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 제가 4대째입니다.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군대에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온

누리교회에 왔는데 당시 저는 본당에서 성인예배만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또래들과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대하면 꼭 대학부에 나가서 또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하고 하늘공동체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6개월 동안 FA선교사로 네팔에 다녀온 이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표MC 제안을 받았을 때 부담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다른 MC들에게 어리숙한 제 모습이 바보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11명의 MC들이 서로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점차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하늘공동체가 선교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기도 드리는 하늘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양대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격도, 경험도 부족한 제가 대표MC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쁨과 감사로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임  
다락방장신임  
순장신임 대학청년부  
대표MC신임  
차세대 코치

## 아이들과 선생님들까지 품는

정승숙 코치  
(서빙고 유아1부)

“다음세대가 바로 서야 나라와 미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세대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세대 유아1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첫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 기도와 헌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차세대 코치로 섬기면서 아이들의 순전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 순전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두려움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일반 교사일 때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면, 코치가 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품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올바른 서면 아이들도 올바른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십계명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속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 부모공경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16절).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신체 중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은 우리 모두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통해 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꼽을 보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공경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한 어머니가 다섯 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다섯 자녀가 한 어머니를 책임 못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키가 작고,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잘 못 드셔서 음식을 잘 흘렸습니다. 함께 사는 며느리가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부엌 한곳으로 데려가 여물통에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며느리가 너무 사랑하는 네 살 난 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무엇을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나중에 어머니 먹어드릴 여물통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는 미래의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를 배웁니다.

“살인하지 말라”(17절). 여섯째 계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살인이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살인을 만들어내는 미움과 분노까지 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생명들이 죽게 내버려두면 여섯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18절).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이 시대는 7계명을 가장 무시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조차 간통죄가 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확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의 간음 또한 일곱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계명 또한 적극적으로 바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욕망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19절).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과거 농경사회보다 현대사회에 더 필요한 계명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훔칠 것도 별로 없고, 훔치는 방법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훔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배부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 합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도둑질보다 배부른 자들이 더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도둑질이 더 중하고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바라는 이가 되라’입니다.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불의하게 내 것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반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질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도둑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이 없는 것은 그들로부터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 탐하지 말고 나누고, 생명을 누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20절).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거짓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도 어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소문실명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면 누가 말한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소문실명제를 선포했더니 소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물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한흠 목사님도 제게 “절대로 네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면 일단 믿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사회의 거짓된 소문, 거짓된 증언이 사라지고 진실만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21절).

열 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탐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명들은 눈에 보입니다. 탐심을 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런 죄입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탐심을 ‘Mother Sin’이라고 합니다. ‘죄를 낳는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양심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제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계명은 우리 삶을 지켜주고 복되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령입니다. 십계명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통일칼럼

정부에서 ‘통일대박론’을 발표했을 때 나는 정말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었다. 당시 두 가지 상상을 했다.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교감하는 완벽한 통일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이 되면 정말 대박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는 상상이었다.

그 무렵 러시아학을 전공한 한 교수님을 만났다. 그 교수님께서 “북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도로 석유매장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박 같은 통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통일대박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나와 같이 통일대박을 기대했던 어설픈 소망을 탓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진짜 통일이 진정 대박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재앙이듯이 통일 이후 교회에 주어질 선물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 역시 재앙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구하라”고 한 뒤 복음화라는 축복을 받았던 유럽이 20~30년 내에 무슬림이 될 전망이다. 2010년 독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2050년 무렵 대부분의 유럽이 무슬림 국가가 된다고 한다. 의회 의원과 정부의 장관 같은 주요 요직, 심지어 국가의 수상도 무슬림 출신이 차지할 수도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수없이 많은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 통일은 ‘신의 한 수’

나는 지난 3년 동안 유럽에 머물면서 유럽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교회에 젊은 이가 없기 때문이다. 60세 가까이 된 장년층 2~30명 모여 예배드리는 독일 교회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었는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통일을 맞이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역할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나님은 통일이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박이 되게 하신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통일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재전파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통일이 되면 만주를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를 거치는 유럽행 철도가 열

릴 것이다. 그 철도를 타고 전해질 복음이 유럽에 재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하교회의 순수한 믿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흘러들어가 유럽의 재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유럽의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대에서 통일한국이 유럽 재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유럽의 이슬람화를 저지하는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 아닐 수 없다.



김두진 총무  
(통일위원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3월 아이스쿨 강좌 안내

다음 표는 3월 아이스쿨 강좌 안내다.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됐다. 공동체와 사역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선택과목은 각자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 선택해 들으면 된다. 풍성한 양육스쿨을 통해 균형잡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귀한 강좌다.

## 공동체 필수 과정

| 공동체     | 스쿨명                     | 학습시작일      | 시간                         | 장소        | 문의            |
|---------|-------------------------|------------|----------------------------|-----------|---------------|
| 양천      | OBC 이사야 II - 임용성 목사반    | 2017.03.14 | 매주 화요일 /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선교관 302호  | 010-2013-0134 |
| 노원      | OBC 이사야 II - 이창규 목사반    | 2017.03.16 |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중계동 상현교회  | 010-8367-5201 |
| 김포 / 특초 | OBC 하나님의 성품 - 박성천 목사반   | 2017.03.1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오후 1시      | 선교관 401호  | 010-8263-4122 |
| 동대문중앙   | Basic QT - 신원석 목사반      | 2017.03.19 | 매주일 /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원목고등학교    | 010-6293-1628 |
| 일본어예배   | OBC 로마서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반  | 2017.03.25 | 매주 토요일 / 오전 8시~10시         | 선교관 301호  | 02-3215-3702  |
| 고양은평    | OBC 성경통독학교 구약 - 박철웅 목사반 | 2017.03.26 | 매주 주일 / 오후 5시 30분~7시 30분   | 진관교회      | 010-3782-5825 |
| 과천의왕    | OBC 요한복음 - 이동훈 목사반      | 2017.03.14 | 매주 화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군포 하나로    | 010-5432-1824 |
| 강남B     | OBC 하나님의 성품 - 김상수 목사반   | 2017.03.14 | 매주 화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도곡교육관 온유희 | 010-7314-9354 |
| 강남A     | OBC 갈라디아서 - 오민 목사반      | 2017.03.15 | 매주 수요일 / 오후 8시 30분~10시     | 비전홀A      | 010-6507-9597 |
| 서초C     | OBC 로마서 - 김영배 목사반       | 2017.03.16 | 매주 수요일 /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민음홀       | 010-3743-9947 |
| 분당A     | OBC 로마서 - 김태웅 목사반       | 2017.03.16 | 매주 수요일 / 오후 8시~10시         | 순병원 - 판교역 | 010-3342-9680 |
| 분당A     | OBC 하나님의 성품 - 김태웅 목사반   | 2017.03.18 | 매주 토요일 / 오전 9시~11시         | 도곡교육관 꿈터  | 010-3342-9680 |
| 서초D     | OBC 로마서 - 이기진 목사반       | 2017.03.21 | 매주 수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두란노홀      | 010-5471-8575 |
| 송파      | OBC 하나님의 성품 - 김소리 목사반   | 2017.03.22 | 매주 수요일 / 오후 7시~9시          | 도곡교육관 기쁨홀 | 010-9510-7839 |
| 서초A     | OBC 로마서 - 김승훈 목사반       | 2017.03.28 |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JDS홀      | 010-5477-1308 |
| 부천      | OBC 갈라디아서 - 박사무엘 목사반    | 2017.03.18 | 매주 토요일 / 오전 7시~9시          | 비전홀       | 010-8959-5350 |
| 부천      | OBC 이사야 II - 김요성 목사반    | 2017.03.19 | 매주 주일 / 오후 4시~6시           | 비전홀       | 010-6328-8370 |
| 대전      | 일대일양육자반 - 대청            | 2017.03.23 | 매주 목요일 / 오후 8시~10시         | 비전홀       | 010-5657-8176 |
| 남양주     | OBC 로마서 - 김현실 목사반       | 2017.03.19 |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화평홀       | 031-565-9686  |

## 사역팀 필수과정

| 공동체 | 스쿨명                         | 학습시작일      | 시간                         | 장소        | 문의처               |
|-----|-----------------------------|------------|----------------------------|-----------|-------------------|
| 서빙고 | OBC 이사야 II - 여성민 목사반        | 2017.03.16 |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선교관 두란노홀  | 02-3215-3266      |
| 서빙고 | 서빙고 순장학교                    | 2017.03.19 | 매주 주일 / 오후 4시 30분~7시 30분   | 선교관 시온홀   | 010-5289-0973     |
| 서빙고 | OBC 로마서 - 박성은 목사반           | 2017.03.21 |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12시 30분    | 신동아 민음홀   | 02-3215-3266      |
| 서빙고 | 성경일독학교 서빙고 여성사역             | 2017.03.23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선교관 두란노홀  | 02-3215-3247,3201 |
| 양재  | OBC 갈라디아서 - 김상수 목사반 (오픈반)   | 2017.03.16 |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도곡교육관 온유희 | 010-7314-9354     |
| 양재  |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양재 목요반 | 2017.03.16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1시         | 드림홀       | 02-3215-3644      |
| 양재  | Basic QT - 오민 목사반 (오픈반)     | 2017.03.19 | 매주 주일 / 오후 2시~4시           | 한동홀       | 010-2852-5468     |
| 양재  | OBC 로마서 - 김승훈 목사반 (오픈반)     | 2017.03.23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12시 30분    | 민음홀       | 02-570-7522       |
| 양재  | 일대일양육자반 - 양성민 목사반           | 2017.03.26 | 매주 주일 / 오전 8시 30분          | 이스라엘홀     | 02-570-7349       |
| 양재  | 순장학교                        | 2017.03.26 | 매주 주일 / 오후 2시~5시           | 드림홀       | 02-570-7311       |
| 양재  | OBC 갈라디아서 - 양성민 목사반 (오픈반)   | 2017.03.30 |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민음홀       | 02-570-7522       |
| 강동  | 일대일양육자반 - 대청                | 2017.03.18 | 매주 토요일 / 오전 10시~12시        | 드림홀       | 02-475-9686       |

## 사역팀 선택과정

| 공동체 | 스쿨명                      | 학습시작일     | 시간                          | 장소           | 문의                |
|-----|--------------------------|-----------|-----------------------------|--------------|-------------------|
| 서빙고 | 더 깊은 묵상 - 서빙고 여성사역       | 2017.3.14 |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선교관 302호     | 02-3215-3677,3201 |
| 서빙고 |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      | 2017.3.14 | 매주 화요일 / 오후 7시~9시           | 본관 꿈터        | 010-9267-7123     |
| 서빙고 | 이주민선교학교 11기              | 2017.3.15 | 매주 수요일 / 오후 7시~9시 30분       | 동빙고 근린공원 전시관 | 010-3937-3927     |
| 서빙고 | 키비 IBS School 서빙고 목요반    | 2017.3.16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12시 30분     | 선교관 301호     | 010-2204-7378     |
| 서빙고 | 목요기도학교 - 서빙고 여성사역        | 2017.3.16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본관 비전홀       | 02-3215-3676,3201 |
| 서빙고 | 무릎선교기도학교                 | 2017.3.17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선교관 콘서트홀     | 02-3215-3227,3201 |
| 서빙고 | 온누리전도학교 - 5분 전도 훈련       | 2017.3.19 | 매주 일요일 / 오전 8시 50분~10시 10분  | 홍보관          | 010-3226-4364     |
| 서빙고 | cmn 미용스쿨                 | 2017.3.21 | 매주 화요일 / 오후 4시~7시           | 선교관 미션홀      | 010-9034-5369     |
| 서빙고 | 시니어아카데미                  | 2017.3.22 | 매주 수요일 / 오후 2시 ~5시          | 선교관 두란노홀     | 02-3215-3122      |
| 서빙고 | 아름다운 동행 171기             | 2017.3.25 | 매주 토요일 / 오후 3시              | 본관 비전홀       | 010-3773-5618     |
| 서빙고 | 아름다운 동행 코치반 13기          | 2017.3.25 | 매주 토요일 / 오후 3시              | 본관 비전홀       | 010-3773-5618     |
| 서빙고 |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훈련 화요반 | 2017.3.28 | 매주 화요일 / 오후 7시 30분~10시      | 동빙고 근린공원 전시관 | 02-3215-3532      |
| 서빙고 | 헬로맘 출산 후 스쿨              | 2017.3.31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 30 분~오후 1시  | 선교관 시온홀      | 010-2786-6221     |
| 양재  | 시니어아카데미                  | 2017.3.15 | 매주 수요일 / 오전 11시 10분~오후 3시   | 드림홀          | 02-570-7311       |
| 양재  | 무릎선교기도학교                 | 2017.3.16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화평홀          | 02-570-7277       |
| 양재  | 헬로맘(임신, 출산 후 스쿨)         | 2017.3.17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 비전홀B         | 010-8889-6857     |
| 양재  | CMN 발마사지 기능스쿨            | 2017.3.22 | 매주 수요일 / 오후 1시~3시           | 양재 사론홀       | 010-9782-0777     |
| 양재  | 좋은어머니스쿨                  | 2017.3.24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12시 30분     | 화평홀          | 02-570-7277       |
| 양재  | 어린이 하트스쿨                 | 2017.3.25 | 매주 토요일 / 오후 3시~6시           | 충성홀/JDS홀     | 010-5415-3879     |
| 양재  | 부모 하트스쿨                  | 2017.3.25 | 매주 토요일 / 오후 3시~6시           | 충성홀/JDS홀     | 010-5415-3879     |
| 양재  | 한국어선교학교                  | 2017.3.25 | 매주 토요일 / 오후 05시~08시 30분     | 도곡교육관 온유희    | 010-3290-4506     |
| 양재  |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훈련 주일반  | 2017.3.26 | 매주 주일 / 오후 4시~6시 30분        | 도곡교육관 온유희    | 02-3215-3532      |
| 부천  | 헬로맘                      | 2017.3.13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드림홀          | 032-322-9686      |
| 대전  | 마더와이즈                    | 2017.3.16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12시         | 301호         | 042-825-3642      |
| 대전  | 일.하.세. 아카데미              | 2017.3.18 | 매주 토요일 / 오후 1시~6 시          | 6층 본당        | 010-5420-4739     |
| 남양주 | 키비 IBS School 남양주 일요반    | 2017.3.19 | 매주 주일 / 오후 2시~4시 30분        | 화평홀          | 010-5226-0841     |
| 인천  | 좋은어머니스쿨                  | 2017.3.22 | 매주 수요일 /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 프리스페이스 6층    | 010-3311-3537     |
| 인천  | 무릎선교기도학교                 | 2017.3.24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 프리스페이스 6층    | 010-4631-5791     |
| 양지  | 마더와이즈(자유)                | 2017.3.22 | 매주 수요일 /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2층 아펜젤러홀     | 031-331-8193      |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뵐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 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 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02-794-1063, smt4803@gmail.com

www.tim.or.kr 채용공고 참조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모집(~3/15)**

자격: 구원의 확신 및 선교에 헌신된 자

한글/오피스 등 문서작성 가능자

문의: 02-794-1063, smt4803@gmail.com

www.tim.or.kr 채용공고 참조

**두란노문고 신입직원, 아르바이트 모집**

모집: 0명(형제), 87년~98년(만20세~30세)

서류: 이력서, 자소서, 신앙고백서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양식 참조)

문의: 02-796-2310, 02-2078-5753

**인천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모집: 재정 및 행정담당 전임간사 1명(남)

문의: 박창홍 간사(032-437-9686)

**샘물중고등학교 여름학기 편입생 모집**

모집: 초6~고1

입학간담회: 3월 22일, 4월 1일 오전10시

마감: 4월 13일 오후 5시

문의: 031-714-7091, www.smca.or.kr

**제이홀 입양전 세미나**

일시: 3월 19일(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신관 2층 꿈아이를

대상: 입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으신 분

문의: 팀장 오창화(010-2049-8210)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

시간: 매 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운 전도사(010-2701-5309)

**두란노서원 서점직원 채용 공고**

모집: 서빙고 서점 매장 직원(1명)

마감: 3월 17일(금)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CMN 마노아팀 의료사역 봉사자 모집**

장소: 포천 송우교회

일시: 3월 19일 9:15 서빙고 출발

사역: 이주민노동자 대상 의료, 미용, 발달

사지, 전도 진료지원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운우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8)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KNOCK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앙공감이야기

#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2

상큼한 20대 민&가희 커플, 30대 신혼부부 한나와 현범  
아직은 서로에 대해 서투른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 「전공 필수」 두 뽀 연애학 “너와 나의 거리는 두 뽀”

# 연.알.못을 부탁해 “내 맘 몰라주는 남친이 드디어 철든 것 같아요”

# War room 2017 “맨날 투닥투닥해도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당신 뿐이야”

# 남자들이 사는 법 “나는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입양한 것 같다”

3월 18일,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CGNTV 노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http://www.facebook.com/cgntv.knock)